

태평양시대를 선도하는 대학 건설

부 만 근 | 제주대 총장

■ 제주대학교의 연혁

제주 지역의 유일한 국립종합대학인 제주대학교는 올해로 개교 50주년과 종합대학 승격 20주년을 맞았다. 1952년 5월 27일, 도립초급대학으로 설립된 제주대학교는 1955년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되어 제주 지역에 고등교육 시대를 열었고, 1962년에는 국립으로 이관됨과 함께 법문학부와 이농학부가 설치되는 등 대학 체제를 제대로 갖추기 시작하였다.

한편, 1980년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분리되었던 캠퍼스가 현재의 제주시 아라캠퍼스로 통합

이설 되었으며, 1982년에는 제주 지역사회의 최대 숙원이었던 종합대학 승격이 실현되었다. 그 후 성장을 거듭한 제주대학은 현재 6개 대학원(일반·교육·행정·경영·산업·통역대학원)에 9개 단과대학, 7개 학부, 53개 학과를 포용하는 명실상부한 지역 거점대학이 되고 있다. 현재 교직원은 교원 443명, 조교 100명, 직원 289명(기성회직 57명 포함)이며, 학생 수는 학부가 재적생 14,707명에 9,742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대학원에는 총 1,305명이 재학하고 있다.

개교 50주년을 맞은 제주대학은 올해를 '대학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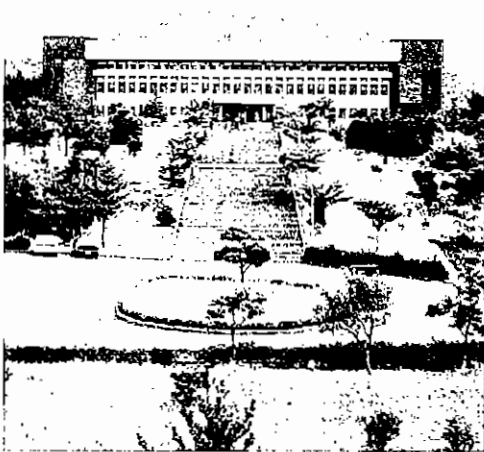


흥'의 원년으로 삼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지난 반세기가 제주도라는 지역에 대학교육이 뿌리를 내리는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반세기는 그동안 쌓은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태평양시대를 선도할 거점대학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목표 아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 제주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노력

제주대학은 1991년부터 제 1차 종합발전계획(1991~2000년)을 시행하였으며, 지난해에도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하여 대학 본연의 기능인 교육·연구·사회봉사에 전력을 쏟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학생 교육의 내실화이다. 제주대학은 최소 전공인정학점제를 강화하고 연계전공과 학생 디자인 전공제 운영을 통해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외국어와 전산 관련 과목을 대상으로 졸업 자격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꿈·감성·우정과 관련한 교양과목을 개발하는 등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세계화와 지방화에



관련된 통합형 교과목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또 사이버대학 운영을 통해 원격 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정보화 관련 교과목을 크게 늘리고 능력 별로 재편성하여 교육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교육의 내실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서관의 24시간 개방과 함께 외국어교육관 원어민 교수들을 통해 외국어 교육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전산정보원에서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확보하는 한편, 전산실습실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학생의 43%에 이르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종합서비스센터와 학생상담봉사센터에서는 각종 증명서 발급, 취업 및 생활 상담 등 학생 관련 업무를 윈스톱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둘째는 교수연구의 수월성 제고이다. 교수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자체 연구 기금을 대폭 확충하고 연구년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우수 연구자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연구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대학 자체에서 마련한 발전 기금으로 매년 20명 내외의 교수를 1년 기간으로 해외에 파견하고 있으며, 1~2개월간의 단기 해외 연수에도 소요 경비를 지급하고 있다. 또 외국의 전문 학술지에 논문 게재와 국제학회 발표, 저서 출판, 특히 출원시에도 소정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연구에 소요되는 대응 자금의 출연과 함께 교수들의 실험실 벤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8개국 20개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맺어 교수와 학생들의 정기적 왕래를 비롯한 상호교류를 하고 있다.

셋째는 특성화분야의 육성이다. 제주대학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비교우위가 큰 분야, 지역사회가 크게 필요로 하는 분야인 관광, 해양·수산, 아열대 생물산업분야를 3대 특성화분야로 선정하여 중점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들 분야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해양·수산 분야는 'BK21' 대상



사업으로 지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으며, 아열대 생물산업분야도 제주도가 전국 유일의 아열대 지역이며 한라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점이 감안되어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RRC, TIC 사업 등을 통한 연구비 출연과 대학의 대응 자금으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관광 분야도 제주도 종합개발사업,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 특성화분야의 연구물들은 제주도의 개발 정책과 관련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넷째는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이다. 제주대학은 평생교육원과 각 특수대학원의 공개 강좌 과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시민들의 교양 증진 교육과 주민들을 위한 실용 외국어교육, 지역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리더십교육, 환경교육은 물론이고, 1차 산업인 농어업 종사자에 대한 기술교육과 기업인을 위한 교육까지 실시하고 있다. 또 제주도내 자치단체 및 기업들과 협약 체결, 연구 용역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한 산·학·관 협동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다수의 지역내 벤처기업을 대학내 시설에 입주시켜 공동연구를 하는 등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초·중·고교생의 능력 계발을 위한 행사 개최, 지역내의 주요 행사에 대한 자원봉사 등 각종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 제주대학교의 비전

제주대학교를 둘러싼 교육 환경은 최근 들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사회로서 지식 생산성이 국가 발전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성공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대학교육의 내용도 그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앞으로 대학교육은 학력의 명목적 가치보다 실질적 가치가 중시될 것이며, 대학은 진리탐구의 상아탑 역할뿐만 아니라 지식기반사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기술과 정보의 산실로서의 기능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제주도에서는 사람·자본·상품의 국제간에 자유로운 이동을 통하여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국제 자유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위한 핵심 사업의 하나로 제주대학 인접지에 첨단과학기술단지가 들어서게 됨에 따라 산·학·연 협동의 기대를 부풀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대학은 도서 지방에 소재 한 관계로 입학 자원이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지역 특성상 2차 산업이 빈약한 까닭에 취업 기반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국제 자유도시 조성에 따라 외국 대학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과도 경쟁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은 제주대학으로 하여금 사회 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면서 대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대학상을 제시하여 바람직한 인간을 길러내야 한다는 대대적인 변신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대학은 앞으로 대학의 강점분야를 중점 육성하는 특성화 전략, 제학생·졸업생·지역 주민 모두를 고객으로 간주하여 그들을 위한 교육을 하는 고객지향 전략, 성공 가능한 분야를 찾아내어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틈새 전략, 기업

체 및 타 대학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제주대학의 약점을 보완하는 연합 전략 등을 다양하게 강구하고 실천함으로써 태평양시대를 선도하는 거점대학을 건설하는데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제주대학은 21세기에 대비하여 이미 제 2차 종합발전계획(2001~2010)인 '제주대 비전 21'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 분야의 비전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 내용의 다양화와 창의력 향상

제주대학의 교육은 그 내용의 내실화, 실용화, 인간화, 정보화를 통하여 교육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유연성을 지닌 열린 교육 체제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창의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인 21세기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의 내용이 중요하므로 학생들의 창의성을 개발하고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특성화 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산업 수요와 연계된 교과과정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교과과정을 통한 취업 및 진로지도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국제화시대를 맞아 다국가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점을 고려하여 교양 외국어교육을 더욱 심화시키고 전공 교과목의 원어 강의를 확대하며, 외국 대학과 공동운영 교과과정을 개설하여 학점을 상호 인정하는 한편, 이중학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교육의 세계화를 가속화시킨다. 또 보건 의료, 식량, 환경, 에너지 등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과제들과 인간 간의 상호작용과 공동체 생활을 이해시키기 위한 생태교육 과정을 강화해 나간다. 뿐만 아니라 자체 사이버대학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원격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을 졸업 후까지 관리하고 재교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기존의 2학기제를 개선하여 다학기제(3~4학

기)제를 시행해 나간다.

교수의 연구 역량의 수월성 제고

교수 연구 역량의 선진화와 수월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수 교수의 유치, 교수 업적의 공정한 평가, 연구 환경의 개선과 연구 성과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교수의 역할 수행과 자기 개발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교수 업적을 정기적으로 평가, 우수 교수에 대해서는 연구비 지원, 연구년 혜택, 해외 연수 우선 선정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기금교수·계약교수·공로교수 등 다양한 교수직제를 활용함으로써 학문의 급속한 발달과 분화에 대응하고 연구 기능과 교육이 심화될 수 있도록 한다.

또 교수의 강의시수를 대폭 하향 조정하여 연구 여건을 조성하고 연구중심 교수와 교육중심 교수를 분리하여 연구중심 교수의 강의는 최소화하거나 면제하여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자체 발전 기금을 확충하여 해외 연수와 연구년 교수를 많이 늘리고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그리고 연구소 단위로 국제 수준의 공동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그 결과를 연구소 평가에 반영하며 제주도 지역 문제에 대한 학제간 연구를 장려·지원함으로써 제주도학의 정립과 연구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뿐만 아니라 외국의 더 많은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교수들의 해외 연수시에 보다 자유





함께 대학 선택을 하도록 하며 학내 정보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여 연구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특성화분야의 적극 육성

제주대학의 특성화는 관광, 해양·수산, 아열대 생물산업 등 3개 분야의 집중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다른 분야에도 상승 작용을 일으키는 시너지 효과를 높이며, 궁극적으로는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제주형 테크노파크를 조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특성화분야에 대한 지원은 관련 단과대학이나 학과, 연구소의 집중 육성과 함께 특성화분야간의 학제적 연계를 강화하되, 발전기금의 우선 지원, 교수의 우선 증원과 수업 부담 경감, 교양과목의 단계별 조정 및 전공과목의 강화, 실험실습 교과과정의 확대를 도모한다. 또 정부와 자치단체로부터 특성화분야의 연구센터를 적극 유치하고 특성화 계열 및 학부는 산업 현장과의 연계로 실습학기제를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특성화분야 이외에 지역적 입장에서 앞으로의 중요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청정·대체에너지, 환경기술, 실버 및 요양의학 분야 등을 '중점화 사업'으로 선정하여 특성화 분야와 협력과 연계를 통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한편 특성화분야의 연

구 결과를 기술화하기 위한 기구로서 테크노파크를 설립하여 제주도에 적합한 미래지향적 산업 육성에 기여한다. 이 테크노파크는 기술혁신 사업, 산업체 지원, 창업보육사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되 앞으로 제주대학 인접지에 설치될 제주첨단과학 기술단지와의 연계·협력을 도모해 나간다.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연계 긴밀화

제주대학의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지금까지의 노력의 바탕 위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심화 개발, 산·학·연 협동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기술과 정보의 신속한 제공, 지역을 위한 봉사 활동 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제주도내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교육 강좌와는 차별적이고 실용적인 프로그램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며, 대학 구내에 있는 현재의 평생교육원을 도심지로 옮겨 시민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또 평생교육원에 학습 과목을 개설하고 정부가 인정하는 학점은행제를 실시하여 일정 학점을 이수한 자는 대학의 정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명예학생제와 함께 제주도 출신 해외 동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특화된 국제 평생교육 체계를 운영한다.

그리고 산·학·연 협동 체제 구축을 확대함으로써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성화분야와 관련된 지역 산업체와 상호협동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산업 및 기술 정보를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산업체 전담 교수제를 두어 현장 기술 지도를 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 등 각종 봉사와 함께 대학 축제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더불어 발전' 하는 대학 이미지를 심어 나간다. **☐**